



간추린 청렴 소식

[1] 감찰본부, 제10회 청렴아카데미 실시

대검찰청에서는 2018. 10. 2. 검찰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아카데미를 실시하여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우리의 경제정책, 경제성장과 부패척결의 상관관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강사 : 現 연세대학교 교수 성태운



[2] 대구서부지청, '달구벌 청렴캠페인' 실시

대구서부지청(지청장 백재명)은 지역 내 선도적 청렴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18. 10. 11. 대구 지역 8개 공공기관 및 2개 민간 단체와 함께 청렴문화 실천운동인 '달구벌 청렴 캠페인'을 실시 하였습니다.



대구지역 '민관 청렴 실천 협의체'의 지속적인 활동을 응원합니다~!!

[3] 천안지청, '친절카드 안내문'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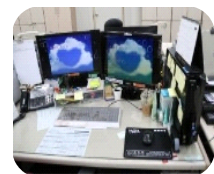
천안지청(지청장 임관혁)은 2018. 10. 벌과금 납부방법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여 친절카드의 '알아두면 편리한 제도 안내문'을 현행화 하고, 공모전에서 선정된 청렴표어를 추가하여 청렴의지도 함께 홍보하였다고 합니다.



민원인 편의를 높이기 위한 천안지청의 노력을 응원합니다 ♥

[4] 군산지청, 'PC 화면보호기' 지속 활용

군산지청(지청장 이선봉)에서는 직원들의 청렴의식 고취를 위해 2018. 9. 청렴 표어가 기재된 pc 화면 보호기를 제작하여 직원들의 컴퓨터에 설치하였습니다.



매일 마주치는 pc화면을 통해 청렴이 더욱 친근해 지겠네요~ ^^

홍보합니다

공직자의 필수교양 청탁금지법

2018. 9. 28.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간의 사회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국민 권익위에서 실시한 청탁금지법 인지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 87.5%, 공무원 95%가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고, 국민 75.3%, 공무원 92.6%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를 주요내용으로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공공기관의 신뢰확보를 위해 시행된 법이 우리사회에 자리잡아 제 역할을 하며 부정 부패 척결에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우리 검찰과 사회의 더 나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청탁금지법의 숙지와 준수를 생활화 해야 하겠습니다 ^^

보고 읽는 스크린 속 청렴!

감성충전, 청렴 명대사



"우리는 모두 단점이 있고, 모두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는 공통점이 꽤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면 할수록
서로의 차이를 더 포용하게 될 거예요"

영화 '주토피아' 中

귀여운 동물들과 명대사가 가득한 영화 '주토피아(2016년 개봉, 감독 바이론하워드, 리치머어)'입니다.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이 평화롭게 어울려 사는 주토피아. 작고 귀여워 경찰이 될 수 없다는 주변의 우려에도 시험에 수석 합격한 '토끼 주디'와 교활한 이미지라는 사회의 선입견으로 상처를 받았던 '여우 닉'이 한 팀이 되어 '차별과 편견'을 이겨내고 '동물 연쇄 실종사건'을 해결하여 훌륭한 경찰관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진정한 소통은 편견 없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부적함을 채워주며 함께 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해주는 명대사입니다.

청렴 상식이 쑥쑥! 청렴이 있는 문화이야기

干嚮不行焉 可謂廉矣 간촉불행언 가위렴의
청탁이 행해지지 않으면 청렴하다고 할 수 있다.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올기 제2조 청심(淸心)의 한 문장입니다.

공직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주변으로부터 크고 작은 부탁을 받게 되어 난처해 질 때가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청탁을 경계하는 마음가짐에 관한 일화(逸話)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조선 정조시대 청백리 목민관 유의(柳誼)의 이야기입니다.

유의는 홍주의 목사로 있으면서 업무에 매우 철저하여 사소한 부탁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도리에 어긋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지켜본 정약용은 지나치게 융통성이 없음을 이야기 하였고 그는



"만일 내가 편파적으로 한 사람만 찾아보고 특혜를 준다면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한 사람의 사사로운 명령을 받드는 것이니
내가 어찌 감히 그런 짓을 하겠는가."

라고 대답하여 정약용을 탄복케 하였습니다.

한번은 정약용이 유의에게 편지를 보내 공사를 의논하려고 하였으나 며칠을 기다려도 답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왜 답장을 주지 않았는지 물으니 유의는 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홍주의 목사로 있으면서
단 한번도 편지를 뜯어본 적이 없네"

그리고는 편지함을 살펴보았는데 편지는 하나도 열어보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는 모두가 조정의 대신들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유의는 그와 같이 공정한 공무처리를 위해 크고 작음을 가리지 않고 사사로운 청탁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공직자로서 '도리에 어긋나는 일'은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사소한 청탁도 경계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청렴한 공직문화의 밑거름일 것입니다.

** 율해는 다산 정약용이 목민심서를 저술한 지 2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

상식이 쑥쑥! 선물이 팡팡! 청렴 퀴즈 이벤트



다음 질문의 답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명나라 관리인 우겸(于謙)의 일화에서 유래되었으며 '두 소매 안에 맑은 바람만 있다.'는 뜻으로 청렴한 관리를 비유하는 고사성어는 다음 중 무엇일까요

- ① 청렴결백(淸廉潔白) ② 청풍양수(淸風兩袖)
③ 청출어람(靑出於藍) ④ 청천백일(靑天白日)

※ 힌트 : Monthly청렴 10월호를 참고하세요~

정답을 보내주신 대상자 중 10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2만원 상당)을 경품으로 보내드립니다.
정답과 주소를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 ★ 응모기간 : 2018. 11. 19.까지
★ 응모방법 : 700spo69a@spo.go.kr

지난 10월 정답은 ① 부패인식도 조사였습니다.
정답자 중 아래의 10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선물을 보내 드렸습니다^^



축! 당첨 한○○(서울서부), 김○○(의정부), 박○○(서울동부), 이○○(정읍), 안○○(상주), 공○○(전주), 주○○(광주), 박○○(서울남부), 임○○(광주), 조○○(외부)



민원인의 목소리

민원인 의견 사례를 소개합니다

다른 민원인이 없고 혼자 있었는데도 번호표 순번을 부르지 않아 기다리다 직원 앞에 가서 이야기하고 업무를 보았습니다.

홀로 번호가 불리기를 기다렸던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급하게 처리할 업무가 있더라도 대기하고 있는 민원인을 잘 살피 신속한 민원 처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친절하게 잘해주고 필요한 자료를 받아갈 수 있도록 모르는 부분도 가르쳐 주면서 일을 진행하여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매우 만족합니다.

군산지청 열람등사(확정등) 직원들의 적극적이고
친절한 업무처리에 감동을 받은 민원인의 칭찬의견이었습니다.

